

코로나에 억눌린 ‘건강·소양’ 쌓아볼까

겨울방학이 시작됐다. 이 기간 학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체험시켜주고 싶은 게 당연할 것이다. 자녀들 또 해보고 싶은 것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코로나 19 시국 속 대체로운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교실 밖에서 소양도 쌓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본다.

◇체험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함을 다한 겨울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겨울방학 프로그램 개설 강좌는 ▲푸시푸시 배드민턴과 ▲점핑 음악즐넘기 ▲3D의 세계가 궁금해 ▲상상력 가득 레진공예 ▲신비한 마술의 세계 ▲나도 셰프 등 체험 중심으로 구성된 총 10개 강좌를 5회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12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받는다.

신청은 학생 본인 이름으로 회원가입 후 강좌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기간 전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다. 모든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이고 교재 및 재료비만 학생 본인 부담이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반영해 회관 방면 시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시 환기 및 소독, 강의실 내 책상 간격 조정, 강좌 시작 시간 분산 등 수강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lib.gen.go.kr/gencs)를 참조하거나 운영과로 문의(062-380-8853-5)하면 된다.

광주중앙도서관도 대체로운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겨울방학 특강은 광주중앙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세계요리교실 ▲보드게임 ▲1인 미디어 영상제작 ▲K-POP댄스(1기) ▲K-POP댄스(2기) ▲종이접기 ▲3D펜 ▲창의과학실험 등 총 8개 강좌로 이뤄졌다. 프로그램 수강료는 모두 무료이며 각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광주중앙도서관도 대체로운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겨울방학 특강은 광주중앙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세계요리교실 ▲보드게임 ▲1인 미디어 영상제작 ▲K-POP댄스(1기) ▲K-POP댄스(2기) ▲종이접기 ▲3D펜 ▲창의과학실험 등 총 8개 강좌로 이뤄졌다. 프로그램 수강료는 모두 무료이며 각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수업은 1-2월 운영된다.

◇독서

겨울 독서프로그램도 다채롭다. 광주중앙도서관은 ‘명화 속으로 풍덩 빠지다’를 주제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북 신문 만들기 ▲

광주·전남 겨울방학 프로그램 동성

지역 작은도서관들, 독서 프로그램 진행
특수교육 학생 대상 미래형 교육활동 운영
배드민턴·영상만들기·요리교실 특강도



명화 골든벨 등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오는 21일까지 운영한다.

석방도서관의 겨울독서교실은 ‘세상을 바꾼 과학과 환경 이야기’를 주제로 학생들이 과학과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접수는 마감됐으며 11-14일 나흘 간 운영된다.

광주시 서구공공도서관은 초등 3-6학년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겨울방학을 알차게 만들어줄 겨울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겨울독서교실은 방학 동안 다양한 독서경험과 체험활동 등을 통해 책 읽기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한 어린이 독서진흥 프로그램이다. ‘내 꿈은 내가 정해요’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PMI 토론, 꿈 마인드맵, 빙고 골든벨 등 놀이와 독후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이해하고, 꿈과 진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총 3일간 운영하며 ▲19일 레몬 아이(넬레 브리너) ▲20일 우리반 코코샤넬(임지형) ▲21일 꽃들에게 희망을(트리나 폴러스) 등 주제에 맞는 도서를 선정해 청소년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고 미래직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초등 3-6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15명으로 제한된다. 참여자 전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공공도서관(062-654-4306)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용강도서관이 책과 연계한 겨울방학 프로그램으로 영어캠프와 독서캠프를 운영하기로 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1월 18일-2월 17일 이어가는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유아와 어린이들이 겨울방학 동안 영어와 독서 체험학습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력 향상과 계획적인 시간 관리의 습관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여수 국동 작은도서관에서는 12일부터 19일까지 2022년 겨울방학 독서·문화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 개설 프로그램은 ▲그림책 슬기로운 방학생활 ▲책을 통해 수학과 친해지기 2개 과정으로 오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국동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된다.

◇다문화·특수교육 학생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은 21일 2주 동안 관내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12명과 학부모 12명 등 총 24명을 대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위드코로나에 대비해 공백 없는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특수교육대상학생·가족의 맞춤형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미래형 교육프로그램으로 다폭 확대·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개설된 교육과정이다.

학생 프로그램은 ▲1영역 체육활동-네트형뉴스포츠·볼링·게이트볼·플로어킥링·플라잉디스크·자이언트스쿠프·플로어볼·서프보드·볼보볼 ▲2영역 SW로봇체험-오조봇EVO로봇코딩·STEAM블록·알파PRO로봇코딩 ▲3영역 그림책으로 보는 성교육 ▲4영역 음악활동-몸으로 만나는 댄스드로잉·내가 좋아하는 음악 댄스드로잉·가면 댄스드로잉·그룹 댄스드로잉으로 개설됐다.

가족 프로그램으로는 ▲1영역 치유활동-부모연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MT다문화기능심리검사 및 맞춤형 상담 ▲2영역 공예활동-마크라메·가족공예 ▲3영역 건강활동-밸런스워킹 ▲4영역 소통활동-서부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간담회로 개설됐다.

최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참여인원을 12명 이내로 제한했다. 자기진단,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물리적 거리 확보 소규모 그룹 활동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관련 방역 수칙을 지켜 안전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남도교육청도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학교와 전남 지역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이종언어 교육을 지원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6일 구례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완도·금일동초, 보성여중 등에서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등의 이종언어 교실을 운영 중이다.

이번 이종언어 교실에는 전남도정의 이종언어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결혼 이민자 여성 또는 특수외국어 전공자가 강사로 위촉됐으며, 학생의 희망과 수준 등을 고려해 매일 2-4시간 씩 교육 과정이 운영된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2022년 한 해 동안 이종언어 교육을 활성화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모국어 활용 능력을 키워주고, 자존감 함양 및 학습력 향상 등의 상승 효과가 발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면서 “이를 위해, 전남도청과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광주교육청, 메타버스 구축·운영

광주시교육청이 가상세계를 통해 광주교육의 현황과 정책을 한 눈에 둘러볼 수 있는 광주교육 메타버스(Metaverse)를 구축·운영한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교육 메타버스는 광주의 상징인 5·18민주화운동 추모탑과 무등산 입석대를 배경으로 실제 교육청 청사 외형을 본뜬 가상세계인 민주관(본관)과 시민관(별관)이 구현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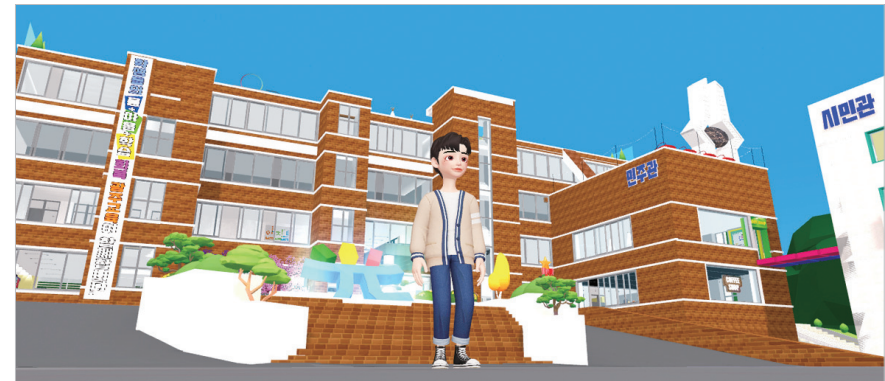
건물 내부는 혁신 교실·교육사랑방·홍보 전시실·체험실 등을 배치해 광주교육 주요 정책 및 학교현장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원격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추가했다.

네이버 가상세계 플랫폼 ‘제페토’를 할

용한 ‘광주교육 메타버스’는 모바일 어플을 설치한 뒤 접속할 수 있으며 이용방법도 간단하다. 이용자들은 온라인 캐릭터를 골라 가상세계를 이동하며 광주교육 면면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벤트·인증샷 찍기·OX퀴즈 다리 건너기·레이싱 게임 등을 즐기고 다른 이용자들 간 대화도 가능하다.

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디지털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구축한 메타버스를 통해 광주교육 홍보와 소통의 지평을 넓히고 교육적 활용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구축한 가상세계 ‘광주교육 메타버스’ 내 교육청 청사.

전남교육청-중국산시성 교육청, 교류전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1일까지 청사 1층 이음 갤러리에서 중국 산시성 교육청과 학생 미술작품 교류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는 수채화, 수묵화, 서예 작품 등 중국 산시성 교육청 초·중·고등학생 미술작품 30여 점과 전남 학생작품 10여 점이 전시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국 산시성 교육청에 전남학생 작품 30여 점을 전시했다.

장정강 주광주 중국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전남도교육청과 중국 산시성 교육

청이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 활발한 교류활동을 해왔다”며 “전남교육청에서 직접 교류전을 갖게 돼 감회가 새롭다. 앞으로도 양국의 교류활동에 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석용 교육감은 “중국학생들의 미술 작품들을 보니 매우 친근한 느낌이 든다”며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문화예술포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교류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동신대 방사선학과 국가시험 전원 합격

맞춤형 교육시스템이 비결

동신대학교 방사선학과가 방사선사 국가시험에서 100% 합격률을 기록했다.

11일 동신대에 따르면 방사선학과 4학년 59명(면입생 10명 포함)이 제49회 방사선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적으로 2,921명의 응시자 중 2,333명이 합격한 전국 평균 합격률 79.9%를 훌쩍 뛰어넘었다.

동신대 방사선학과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합격률 100% 등 매년 전국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은 합격률을 올리고, 2017년에는 전국 수석을 배출하며 명문

학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높은 합격률의 비결은 학생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집중케어 프로그램, 전공 멘토멘티, 스터디 지정교수, 그룹 스터디, 동신반딧불, 국가시험 전용 공부방 등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있다.

또 국가시험 과목별로 개인 특강을 진행하고, 여러 번의 모의고사를 치르게 한 뒤 분석 자료를 토대로 개인 면담을 갖는 등 학생 맞춤형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해 동신대 방사선학과는 올해 만 58세의 정근택씨 등 3명의 만학도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나라 기자

네모난 교실은 잊어라!



전남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5개년 175개교, 1조3천억 투자

-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다양한 공간혁신
-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교실
-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한 그린학교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복합화